

올해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어디?

농진청, 대상에 '홍산' 재배 홍성군 마늘연구회 최우수에 제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등 3곳 우수상에 무주 과수영농조합법인 등 5곳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에서 육성한 채소·과수 품종을 재배하며 규모화를 통한 품질 균일화와 국내·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통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를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심사 규정과 심사과정을 농촌진흥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심사위원으로 참여(20%)해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9곳의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는 1차 서면심사(40%)와 2차 발표심사(60%)를 합산해 최종 선발했다.

대상은 국내 육성 마늘 품종 '홍산'을 재배하는 홍성군 홍산마늘연구회가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한다. 최우수상은 그린영농조합(경기 안산), 우리품종 배 생산단

지(전남 나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제주) 3곳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각각 상금 150만 원을 수상한다. 우수상은 치악산다래지역특화단지(강원 원주), 미원사과연구회(충북 청주), 무주과수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 문경감홍사과연구회(경북 문경), K3멜론특화단지(경남 의령) 5곳이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과 각각 상금 100만 원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11월 중 개최하는 '농촌진흥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농진청은 우리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작물(벼, 밀, 고구마 등), 원예(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마늘, 양파 등)·특작(인삼, 버섯 등) 작물을 대상으로 국내 육성 품종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희 기술보급과장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하고 홍보 및 유통체계의 판로지원을 통해 우리 품



19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국산 육성 마늘 품종인 '홍산'을 재배하는 충남 홍성군 홍복음의 농가를 방문해 재배현장을 둘러보며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종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는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식품 창업기업 모의 클라우드펀딩 지원

도·전북생진원, 경쟁력 강화·맞춤형 e-현장실습 위해 오늘 설명회·23일 교육생 선발·펀딩 진행은 12월 중에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전북 농식품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시대에 맞춤형 e-현장실습을 위한 클라우드펀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지원은 전북도의 식품산업 전문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의 공동 협력으로 추진되며, 도내 식품벤처 기업의 시장성과 고객 검증으로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지원의 주요 내용은 클라우드

펀딩을 위한 기본교육과 전문가의 심화컨설팅, 기업별 제품에 대한 스토리·사진·영상을 담은 클라우드펀딩 콘텐츠 제작과, 홍보마케팅, 모의 클라우드펀딩 진행 및 향후 실 클라우드펀딩을 위한 연계지원으로 진행된다.

관련 지원 설명회는 오늘 진행하며 23일 교육생 선발을 시작으로 12월 중으로 모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업 제품의 제품의 시장성 평가 및 투자 가능 여부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간 진흥원은 전북도의 지원을 받

아 3년미만 농식품창업자 발굴을 위한 농식품창업아카데미와 재직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형 인력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모의 클라우드펀딩으로 창업기업의 스토리텔링 역량 강화와 마케팅 노하우 습득으로 인한 기업 자생력 강화에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원장은 "농식품 창업아카데미는 농식품 산업으로 특화된 창업프로그램과 교육생의 니즈에 맞춘 실전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 및 성장형 창업기업이 지속가능한 농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교육생이 성공창업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9월말까지 암 발진율 전년 대비 30% 상승

건협 전북지부, 정기 암 검진 통해 399건 발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배기웅)는 9월말까지 건강검진을 통해 399건의 암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건협 전북지부가 2019년, 2020년 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암발진율이 9월말 현재 3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한 암종 가운데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으며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폐암, 신장암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갑상선암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증가율은 폐암이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2019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차지하고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 특히 여성에서 비흡연 폐암이 늘고 있다. 남녀 비흡연 폐암환자는 전체 폐암 환자의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흡연 여성은 전체 여성 폐암 환자의 87.5%나 됐다.

비흡연자의 폐암 원인은 간접흡연,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하는 연기나 연료 연소물에 의한 실내공기오염, 주거환경의 라돈 노출, 인구 고령화, 유전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기웅 본부장은 "무엇보다 암과 같은 큰 질병은 조기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결정지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강당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공동으로 제8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은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강당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공동으로 '제8회 아름다운 동행 희망풍차 나눔 걷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북은행 김영석 홍보팀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김신영 영업담당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은행은 이번 행사에 후원금 1,000만 원이 지원됐다.

도내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열린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1만보를 걸은 후 1歩에 1원씩 참가비 1만 원 씩을 기부하고 SNS에 참여

아열대채소 소득작물 개발

전북농기원, 멕시코 감자 '암빈' 생산현장에 보급 이눌린 성분 함유돼 당뇨병·대장암 예방효과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2016년부터 5년간 멕시코 감자라 불리는 암빈에 대한 재배기술을 개발해 생산현장에 보급했다.

암빈은 멕시코 감자, 히카비라고 불리며 멕시코가 원산지로 표면은 노란색으로 속은 배나 감자와 비슷한 크림색이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가 세계 2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영양가가 풍부한 채소다.

효능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면서 단맛을 내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먹기에 적합하고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 영양분은 탄수화물과 수분이 많고 미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고 열량이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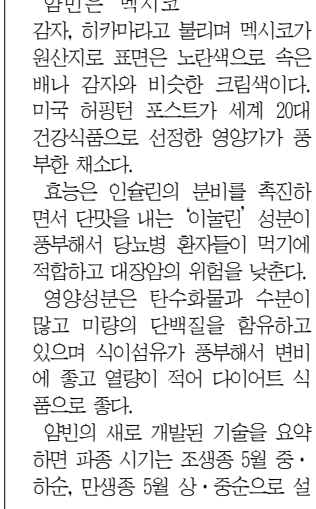
암빈의 새로 개발된 기술을 요약하면 파종 시기는 조생종 5월 중·하순, 만생종 5월 상·중순으로 설

정했고, 심는 방법은 포복재배시 이랑사이 25cm포기사이 25cm가 적당했다.

또한, 거름사용은 혼합유박과 가축분퇴비를 혼용할 때 수량성이 높았고 구근비대를 위해 적심작업을 2회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며, 수확 후 부패방지를 위한 저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 8가지를 개발했다.

암빈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농가는 진안군 백운면에 동산농장 대표 임강환(55)씨였다. 6년전에 재배를 처음 시작한 현재는 1만6,500㎡로 전국 최대의 암빈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과 현장연구를 병행하며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성문호 아열대작물실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작물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진안군원 동산농원 임강환 대표 부부 재배농가.

전북중기청, 하반기 '수출유망기업' 모집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대상... 내달 6일까지 신청해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청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정책적 연계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1천 개사를 목표로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687개사를 지정했고, 전북지역은 30개사를 지정할 바 있다.

지원대상은 간접수출을 포함한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미만의 수출기업이며, 내수기업 및 채무불이행기업, 국제·지방세 체납기업 및 특정 서비스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년간 중기부·중진공 등 6개

기관 수출지원사업과 기보·신보 등 4개 기관 수출금융·보증지원, 기업은행·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금리·환거래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해외전시회 취소, 거래선 단절 등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박람회 참가 등 평가 항목 일부를 완화했으며, 이번 기회에 신청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 우대혜택도 누리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가축질병,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중요'

전주김제완주축협,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생석회 공급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사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목적으로 지난 15일부터 양돈을 사육하는 조합원들에게 생석회를 공급하고 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의 생석회 공급은 지난 9일 강원도 화천지역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 빠른 대처와 차단방역을 위해 긴급방역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총 3,360포의 생석회를 확보해 관내 거점소독시설이 갖춰진 완주 한우육종개량센터와 김제 거점소독시설에서 양돈 조합원들에게 각각 30포씩 공급했다.

김창수 조합장은 "가축질병은 사후 대처보다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축산농가에 감사드리며, 조합에서도 이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조합원들에게 생석회 공급을 결정했으나 가축질병 예방을 조금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야구를 더 맛있게' 하림, SNS 이벤트 진행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자연실록 공식 SNS 채널에서 '야구를 부탁한답'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포스트시즌을 기다리는 야구팬들에게 직관의 아쉬움을 달래 줄 닭고기기를 선물하려는 것.

하림 자연실록 SNS 채널에서 '순수 만든 안심튀김' '자연실록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 등을 활용한 요리 클로즈업 사진을 보고 각 요리에 어떤 제품이 사용됐는지 댓글로 알아맞히면 참여가 완료된다. 응모자 중 10명을 선정해 야구 볼 때 먹기 좋은 하림 양념육 세트를 선물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27일. 자세한 내용은 하림 자연실록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turalharin/)과 인스타그램(http://www.instagram.com/harin_natural), 블로그(https://blog.naver.com/harin_natur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림 마케팅 담당자는 "야구장에서 닭고기를 먹는 재미가 출몰한데 올해 정규리그는 거의 무관중으로 진행돼 아쉬움이 클 소비자들을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간편하고 맛있는 하림제품과 함께 가을야구를 신나게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수 만든 안심튀김'은 국내산 안심 통살에 고소한 빵가루를 입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순살 닭튀김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자연실록 동물복지 IFF 큐브 닭가슴살'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닭고기 가슴살을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 양념한 제품으로 오리지널, 갈리, 청양고추 맛 3종이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